교육연합신문

2021년 11월 17일 (수) **제357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다 ▶5면

인천경연초중학교는(교장 이현주)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인천지역 발전 5사 및 한전 연합 ESG 경영 사회공헌활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숲'조성 기념식을 진행했다.

충주대원고,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8면

충주대원고등학교(교장 김인섭) 2학년 형진성 학생(사진)이 제3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발명전시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인문학적 사고 키우는 '장성공공도서관' ▶16면

장성공공도서관(관장 박영수)은 학생, 지역주민 대상으로 진로인문학 특강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연, 토의·토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도시 위한 기후혁신 시스템 전환 플랫폼 필요"

이재준 고양시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도시세션 개막식서 기조연설

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11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6) 도시세션 개막식에서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 프레임과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오후에는 '도시의 현재, 고양의 성과 및 미래비전'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이번 COP26 도시세션 개막식 연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하 UNFCCC)으로부터 제26차 당사국총회에 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기조세션에서는 도시이니셔티브 발족의 의의에 대해 UNFCCC가 설명하고 참여 기관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조연설에서 "UNFCCC가 탄소중립 기후행동의 리더로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시가 핵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인 UGIH(유엔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UN Global Innovation Hub)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밝혔다.

UNFCCC가 마련하고 있는 UGIH는 각 도시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적용하여 도시 내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기후 문제해결의 열쇠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도시마다 독자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 프레임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UNFCCC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기후위기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지혜를 모아 실천해야 할 때이며 도시를 위한 기후행동 플랫폼인 UGIH에서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해결책을 찾자"라고 제안했다.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환경장관, 전 벤쿠버시장,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회장과 이클레이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다. 이어 열린 오후 세션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의 현재, 고양의 성과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먼저 "고양시는 환경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109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현재 다섯 개의 뉴딜사업과 국가규모의 뉴타운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대적인 도시화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에서 고양시는 탄소중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과 협치를 통해 녹지보존, 탄소중립 기반 도시계획 및 재생, 교육 등과 연계하여 도시전체가 탄소중립을 향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정량 대비 32.8% 감축 목표 수립과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가입을 통한 92개 세부사업 탄소저감 이행 모니터링 ▲시민 기후환경 학교 운영, 탄소중립 실천연대 구성 및 위원회 활동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 등 자연생태계 보존, 가로수 2열 식재와 하천 100리길 나무식재 ▲2025년까지 모든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사업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창의적이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실천하기 위해 UNFCCC와 함께 협력중이다"며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선 기자 kbs@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사회 주요 문제 해법 제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정책과 사업 분석 · 평가 개선방안 도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사진)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4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매년 6~8회 개최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1월 17일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차 포럼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6월 22일에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 선발대전 워크샵'을 9월 24일에 제4차 포럼으로 '실패극복 원인분석 전문가토론회'를 10월 23일에 제5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11월 13일에 제6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시상'을 12년 17일 개최했다.

올해는 8월 20일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성공지혜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8월 25일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10월 5일 개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맡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종합평가해 미흡기관에 개선권고와 이행조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과 2021년의 실패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주관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경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으로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전문교육'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세부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괴산군 주요업무평가' 연구를 맡아 충북 괴산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사회변화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의 이론과 분석평가틀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사업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장성 월평초, '전국 7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꿈과 상상력 키우는 '칙칙폭폭 상상놀이터'… 학교 운동장 놀이공간 혁신

월평초등학교(교장 최명심)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학교 운동장 놀이공간을 혁신하고,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7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전국 7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51개소를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로 평가해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장성 월평초 상상놀이터는 2019년 공간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으기로 시작해 2020년 TF팀 구성과 월평교육공동체가 함께 프로젝트 수업, 설문, 공모전 등을 거쳐 놀이공간을 만들고 2021년 놀이터를 개장해 지난 10월 '학교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다.

'칙칙폭폭 월평상상놀이터'는 월이평이역에서 출발해 꽃송이 흔들그네, 이종형 평균대와 Y계곡 징검다리, 지역민과 소통하는 숲길 간이역, 모험과 도전의 육각추 형네트와 스파이더네트, 짚라인과 다양한 상상의 창의놀터, 자연 속에서 이야기와 꿈이 피어날 숲속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물흐름관찰로는 펌프놀이를 병행해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공간이다.

'전국 7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근거는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 교사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수칙 외에 놀이기구의 순차적인 이용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했다.

월평초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채워져 놀이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원과 같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대근육 운동이 가능한 놀이기구와 함께 정서발달을 위한 2층 트리하우스, 쉼터, 벽화 그림 등을 놀이시설 주변에 설치, 놀이시설 안쪽에 산책로를 구성해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명심 교장은 "전국 7대 우수 놀이시설로 선정된 기쁨을 상상놀이터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한 월평 교육공동체와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場이 되도록 초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2580news@daum.net

공공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모은다

한국발명진흥회, 사회문제 해결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고준호)는 11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공식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시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 10인에게는 발명진흥회장상과 총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수거 재활용 아이디어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5일까지 아이디어플랫폼(www.idearo.kr)을 통해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문제해결력,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10팀(개인)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순위를 결정할 본선을 치르게 된다.

수상자 10인 모두 발명진흥회장상과 함께 최우수상 1인은 100만 원, 우수상 2인은 각 30만 원, 장려상 7인은 각 2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수상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회문제해결에 쓰일 수 있도록 나눔할 예정이며, 아이디어로는 추후 유관 기관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전국과학전람회’ 강원도 교사·학생 출품작 화제

최우수상 1점, 특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9점 등 출품한 16점 모두 수상

강원교육과학정보원(원장 김대섭)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에 학생부 13작품, 교원부 3작품을 출품해 생물 부문과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교원부 생물 부문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친환경 수경재배 효율에 관한 연구(어론초 교사 이현미, 상승초 교사 심선옥)’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상은 학생부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콩비지, 베지 버거로 미래산업의 주연이 되다!(황지초 4학년 김규영, 5학년 노현희, 백서연) ’작품과 , 교원부 지구 및 환경 부문의 ‘탄소중립(Net-Zero)시대, 이끼를 통한 탄소발자국 지우기 효과성 연구(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 교사 홍은미)’ 작품이 수상했다.

또한 △강원과학고 2학년 김우혁, 신윤섭, 황지현 학생의 ‘수직 낙하하는 물줄기의 겹침 구간에 대한 연구’, △강원과학고 2학년 김준혁, 임주원 학생의 ‘NP-hard 유한체 다항식 복구 문제를 이용한 암호 설계’, △강원과학고 2학년 유선호 학생의 ‘단발성 대화 데이터 기반의 다중 감정 분석 모델 구출’, △기린초 교사 김소영, 기린(진동)초 교사 이상현의 ‘호두껍데기(내피)를 활용한 친환경 합성목재 개발 연구’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밖에도, 학생부 장려상 9점 등 올해 출품한 16점 모두 입상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김대섭 원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학생들과 교원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태도를 높이고,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조희연 교육감, 직업계고 미래 인재 만나다

서울교육청,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취업 독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고자 11월 4일 용산철도고, 12일 수도전기공업고를 찾아 갔다.

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동행(10월 26일)에 이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전성을 알리며 철도·에너지 분야 직업계고 취업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11월 4일 오전에는 국내 유일 철도전문 특성화고 용산철도고(교장 홍민표)을 방문해 철도분야 미래인재를 만났다.

철도와 관련한 기술과 다양한 실무를 익히고 있는 학생들 속에서 실습수업 체험과 간담회를 통해 △철도분야 진로 방향 △직무역량 향상 취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국내 유일 철도전문 특성화고 용산철도고는 1963년 용산공업고로 설립돼 2020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4월 1일 용산철도고로 개명했다.

△철도운전기계과 △철도전기신호과 △철도전자통신과 △철도건설과에서 철도운전, 철도유지 및 보수, 건설 등 다양한 철도관련 실무분야 우수 인재 양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특성화고 입시에서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11월 12일 오전에는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업고(교장 장동원)을 찾아 △전기공사 △옥내 배선 △CAD기계설계 실습 등 같은 전문교과와 더불어 도서관·갤러리 등을 활용한 배움 현장에 교육감이 함께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수도전기공업고는 △발전설비와 에너지제어, △송배전 및 건축전기, △전기공사 분야 설계 및 건설, △에너지 통신 등의 에너지산업 전반의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및 그룹사를 비롯한 협력관계사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이 강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졸취업과 현장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운 점을 직접 듣고 느끼고, 직업계고 실습수업 체험을 통해 현장실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위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남북교류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

강원교육청, ‘2021 평화 · 통일 학술 아카데미’ 개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고성 남북교류사무소에서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2021 남북교류사무소 평화·통일 학술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북교류사무소의 첫 대규모 학술행사로 △남북교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기본), △다양한 남북교류 사례를 통한 실천 방안(심화), △강원 남북교류 한마당(종합) 등 3단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학술아카데미 1단계(기본) 프로그램은 4일 오후 2시 ‘대결과 평화의 현장을 통해 본 역사와 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8일과 13일에는 2단계(심화) 프로그램 ‘다양한 남북교류 사례를 통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남북교류 실천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3단계(종합) 프로그램은 현장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강원 남북교류 한마당’으로,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성 관내 콘도에서 △남북한 말모이를 통한 남북교류의 필연성(기조 발제), △남북교류와 향후 발전 방향(발표), △주제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의 진원지로서의 남북교류사무소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의 비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화를 인식하고 화해·협력·상호존중의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전태일기념관과 업무협약 체결

‘청년 태일, 노동인권을 말하다’ 전시… 노동인권 체험교육 활성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3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노동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관장 오동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험중심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태일기념관 및 수탁기관인 전태일재단과 협력하여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랜선으로 만나는 노동인권 체험교육 영상-응답하라! 노동인권!’ 등을 개발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노동인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 이해 및 체험교육 등에 대한 연수지원 △전태일기념관을 활용한 노동존중 학교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전태일 열사 51주기와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10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1층 서울교육갤러리에서 ‘청년 태일, 노동인권을 말하다’ 전시회를 10일까지 개최했다.

전시회는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 이해 증진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태일기념관 상설전 주요내용 패널 전시 △모범업체 ‘태일피복’ 현판 및 사업계획 구상 복제품 전시 △‘태일의 꿈’을 주제로 한 시인 7명의 시일력(時日曆)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태일기념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생 및 교원의 노동인권 이해 증진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체험중심의 노동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역량 중 하나인 노동존중의 가치가 학생들에게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후속편

경기교육청, 학생 참정권 교육자료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2.0’ 자료를 개발해 초·중·고에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각 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교육감 선거를 탐구하는 활동 자료로 지난 3월 개발 · 보급한 학생자치활동 중심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 되기 프로젝트’ 후속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보급 자료가 학급과 학생회에서 학생 주도 교육활동을 지원했다면, 이번 자료는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교과교육활동 자료로 개발했다. 특히, 세 가지 선거를 학교급 학령 수준에 따라 자료를 나누고 차시별 활동지를 별도 제공해 교과서와 두 가지 개발 자료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참정권 교육 효과를 높였다.

고등학교 자료는 ▲민주주의 꽃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한 유권자 되기, ▲지방 선거·교육감 선거 투표 온도 높이기를 3차시씩 탐구활동으로 구성해 유권자 교육 자료로 활용도를 높였다.

‘학생 유권자에게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교재 두 권과 활동지 모음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도 만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가입이 보장되었다”면서, “교육청 개발 자료를 통합 활용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들에게 살아있는 참정권교육이 일상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강원교육청,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학생 자살예방 위한 교직원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5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학교단위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하며, 위기학생 발생 시 효과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도내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화영(순천향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하며,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자살과 우울증, △정신사회적 치료,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의 실제 등 위기사안에 대한 다양한 심리·정서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은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오전에 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기 교육을 실시했고, 오후에는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기 교육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위기학생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학생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학생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생명지킴이가 되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강원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 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충남지사 1577-2036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 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72-909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교육청, 토의·토론 중심 수업 지원

초중고 모든 토의토론교육 희망학교에 평균 300만원씩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학교 문화상 제시를 위해 △토의·토론문화 확산 △국제공동(토론)수업 질적, 양적 확대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계획 등 새로운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지원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지식 전달 중심 교수-학습활동의 한계, 학습에 흥미가 낮은 학생들의 내적 동기 유발의 어려움, 학생들 간의 소통 능력 부족,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글로벌 사회에 대처하는 세계시민역량의 부족 등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어왔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소통과 협력'중심의 토론수업 확대, 원격·비대면 교육활동의 장점을 살린 디지털 기반의 공유·협업·상호작용 역량 신장, 과정중심평가 질적 심화, 수평적인 학교 문화 조성, 민주적인 민관협력(거버넌스) 운영, 국제협력을 위한 세계시민역량 함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학교, 마을의 모든 교육활동 장면에서 토의·토론이 일상화되는 '토의·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서울학생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및 교육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토의·토론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및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토론 중심 교직원회의, 교원학습공동체, 우리 마을 교육토론회 등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림책 읽기 기반 토의·토론수업(초등) △독서 기반 토의·토론수업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질문하고, 함께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중심 평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기반토의토론교육 및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등 토의토론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 교당 평균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학교공동체의 토의·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민주시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자치 △학교자치로 함께 만들어 가는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활성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을과 함께하는 토의·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토의·토론 문화 확산 △학부모, 시민 소통 채널 운영 △도서관 기반 토의·토론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연대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공동(토론)수업'을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이 '국제공동수업'에 희망하여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잘 가르치고, 더욱 잘 배울 수 있는 교수·학습 개선과 디지털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는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 계획들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래 역량을 신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불평등한 道입찰보증금 제도 개선돼야"

조광희 경기도의원,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부당성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설공사 발주시 1순위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통해 낙찰자가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조광희 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을 하고 있다"라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조광희 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제시하며 "행안부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에게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만 가혹한 부담을 주고 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왜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높게 부과하여 적용대상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서, 금액까지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 숨통을 쥐어짜는 행위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는 입찰보증금 금액을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잡으려고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 세심하고 지역건설업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마무리 발언했고, 이성훈 국장은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유연 기자 lyy@

자살예방칼럼

불교의 생명관과 자살인식 개선 ④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 김대선 교무

지난 3월 25일, '삶이오' 생명존중의 날을 선포한 후 생명운동포럼 첫 번째 순서로 지난 5월 7일 '불교의 자살 인식개선 사업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 주관으로 종교인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살리기 교육사업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생명문화학회 등이 참여하여 10차례에 걸쳐 릴레이 식으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각 종단의 생명관과 생명을 기리는 교리와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지난 15여 년 간 OECD 1위 자살국의 오명을 벗어나고 내몰린 죽음으로 희생되는 자살을 줄이는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世界觀)은 크게 영혼불멸(靈魂不滅)을 믿는 종교적 생명관과 영혼은 물질의 소산이라는 과학적 생명관이다. 이 두 생명관은 끊임 없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인간 중심의 생명관에 기인한다.

과학은 인간의 복리를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학은 일부 탐욕스러운 자본과 결합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가축을 복제하는 기술까지 개발했고, 로봇 등 인간의 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인간의 생명만 소중하다는 생각은 그것이 과학이건 종교이건 결국 인간 생명의 존엄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에 불교계는 진정한 생명의 존엄과 가치의 근거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윤리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살예방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의 생명관은 매우 심오하여 해량(解量)하기 어렵다. 불교의 화엄경에 의하면 넓게는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이고, 그 한 생명체가 전 우주라 하며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온 우주의 생명체에는 형상이 있는 생명체, 형상이 없는 생명체도 있으며 생(生)과 식(識)이 없는 생명체도 있다. 물질 자체도 생명이며 정신 자체도 생명체이며 동시에 물질과 정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도 생명체이다.

이와 같이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매우 다양하고 심오하여 인간의 육안으로는 모두 다 관찰할 수 없으며 청정하고 수승(殊勝)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관찰될 수 있다고 했다.

불교는 생명을 연기설로도 설명한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머무는 세계를 유정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으로 나눈다. 기세간은 유정(有情)상태의 생명체(중생; 衆生)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로 이루어진다. 욕계는 일체 유정이 탐욕, 음욕 등의 근본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세계이다. 색계는 욕계를 초래하는 그러한 근본 욕심은 없어졌지만 아직은 더 이상 욕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승한 물질이 남아있는 세계이다. 무색계는 수승한 물질의 존재도 없는 정신 상태의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붓다는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인 육신과 영혼을 나누어 생명을 규정하려는 생각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붓다에 의하면 육신이나 영혼은 '12연기설'인 '유전문(流轉門)'과 '환멸문(還滅門)'이 있다 했다. '유전문'에서는 생사가 나타나지만 '환멸문'에서는 생사가 사라진다.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은 무명에 휩싸인 중생들이 생명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생사를 느끼면서 만들어 낸 허구인 것이다. '잡아함 (39)경'에서 '한 알의 볍씨가 인연을 만나면 그 볍씨는 사라져도 거기에서 뿌리, 줄기, 가지, 잎, 볍씨가 나오듯이 식온(識蘊)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새로운 오온(五蘊)으로 상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에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영혼은 없으며 이러한 생명의 상속(相續)은 업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생명은 이러한 업보의 현상인 것이다. 우리가 육신이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본질은 업보인 셈이다.

불교의 연기설은 이러한 '무아업보설'을 의미한다. 무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연기란 업보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육체나 영혼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업으로 본다. 이러한 업설의 생명관에서 보면 생명의 존엄은 업(業)의 결과 즉 보(報)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자살은 죄이다. 자살의 업은 윤회한다'했듯이 누구나 12단계를 거치는 인연을 따라 연기하며 영원불멸하므로 절대적으로 생명은 불멸의 고귀성을 가진다 하겠다.

불교계가 생명존중에 목적을 두고 '법회, 의식(儀式)을 통한 생명살림 켐페인, 생명지킴이 활동, 자살예방 학술대회, 유족 자조 모임 운영, 자살 유가족 템플스테이, 자살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성직자 자살 인식개선 교육, 자살 예방교육 강사양성 교육, 자살예방사업 예산 증액 촉구대회'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운동을 지속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불교의 250계율에서 가장 먼저 살생을 하지 말라 하셨듯이 불교의 생명관은 항상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다.

고교 평준화지역 배정방식 서한문 발송

경기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전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0일 고교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22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원서 접수 기간에 앞서 고교 배정 방법에 관해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학교 선택과 지망 순위 작성 ▲수원 등 9개 학군 배정 방식(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 가운데 희망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동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한문과 각종 고입 관련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은정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서한문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방안을 이해하고 학생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돕고자 준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에 관한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고객만족 최상의 서비스 LASER 레이져타운 TOWN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액상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터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칠판, 문서세단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말끔히 해결

불용컴퓨터 및 중고컴퓨터 전문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정보누출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전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21세기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자재원의 수거율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폐자재에 대한 최대한 재활용화를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서비스 LASER 레이져타운 TOWN 레이져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

서울교육청, 2022년도 예산 10조 5803억원 편성

조희연 교육감 "개별 학생 맞춤·미래교육 수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아쉬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시 일상으로, 교육회복 지속 중점 지원',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 다지기',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 중점사업'을 위해 예산(안) 10조 5,803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일상으로, 교육(학력)회복 중점 지속 지원'을 위해 총 404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초등학교 교과보충 집중 지원을 위해 135억 원, 중·고등학교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142억 원, 그리고 초·중·고 전체 대상으로 토의·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 총 2조 9억 원을 편성했다. 공립유치원 13개원 설립 177억 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 90억 원 등 '처음학교로, 적응과 출발 지원'을 위해 5,950억 원을 편성했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 조성 15억 원, 중1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기기(디벗) 구입 및 자치구와 확대 협의 중인 디지털 튜터 사업에 537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편성했다.

초·중·고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 서울학생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159억 원, 학습자료 및 학급준비물 지원을 위해 166억 원 등 총 4,078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학교자율운영체제 안착을 위해 9,255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사업을 위해 191억 원 증액,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교육사업 운영 방식을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688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내실화를 위해 149억 원,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497억 원을 편성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했다. 생태전환교육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탄소배출제로 학교,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 급식 등을 통해 추진된다.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 다지기'를 위해 총 8,331억 원을 편성했다.

배움을 잇고 행복을 빚는 평생교육을 위해 321억 원을 편성, 참여는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해 593억 원을 편성,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꿈을 잡(JOB)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550억 원을 편성, 서울 학생의 체력 회복과 건강 지원을 위해 6,86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총 6,111억 원을 편성했다. 쾌적한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4,832억 원을 편성, 친환경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해 70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이번 본예산(안)에 BTL 상환 및 운영비 1,024억 원, 예비비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에 902억 원, 교육행정일반 등 2,370억 원, 조리종사원 및 당직전담원 등을 위한 휴게실 환경개선비도 100억 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까지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다만, 2022년 본예산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8,383억 원 증액하기는 했으나, 이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1조 5,836억 원 대비 1조 33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인건비·보건·급식비 등 경직성 필수 경비가 증가해 개별 학생 맞춤·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많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압박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사회의 기초가 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먹거리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교육청, 기후 위기 대비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후 위기와 위드 코로나 시대, 친환경 무상급식 10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생태전환과 기후를 생각하는 학교의 먹거리교육 포럼'을 11월 12일 서울교육 유튜브(YouTube)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먹거리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기능, 즉 먹거리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자 기획됐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 기후 위기 완화를 고려하는 학교의 먹거리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오전은 국제포럼으로 진행됐고 오후는 국내 포럼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의 복원을 위해 먹거리 생태전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학자,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다.

기조연설은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이 맡아 '생명·평화·공경-생명살림의 교육'이란 주제로 기후위기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세션1은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생태적 상상력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패널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 질리언(저드슨 시몬프레이저 대학 교수, 캐나다), 미리언(비엘라 지구헌장 사무국장, 코스타리카)과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2는 이재영(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가 패널 엠마 핀(지구의 친구들 협력연구자, 미국), 토모코(아라카와 아시아농촌연구소 디렉터, 일본), 김유익(신향촌건설운동 활동가, 중국)과 '세계의 농업과 지속가능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3은 한윤정(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학교급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패널 김흥주(원광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길예(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 이의철(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토론에 참여했다.

세션4에서는 '그린(GREEN)급식 학생 공론장'이 열리는데, 신지혜(서울대 대학원 비전임교수)가 그린(GREEN)급식에 대해 발제하고, 배성호(송중초 교사)가 '학생행동 365'학생(20명),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포럼을 통해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메시지는, 기후를 생각하는 학교의 먹거리교육 정책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태전환 급식 정책추진에 용기를 내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꿈·부모님 나라 소개해요

경기교육청,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2년 연속 전원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6일 열린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사용과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고자 교육부가 주최하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이 주관해 전국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 53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 5명이 모두 수상했다.

초등 부문에서 ▲강소피아(원일초)가 금상 ▲박제연(반송초)이 동상을 차지했으며, 중등 부문에서는 ▲블레싱(보영여고)이 대상 ▲이준현(의정부광동고)이 금상 ▲마리아(원곡고)가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한국어와 함께 러시아어, 중국어, 헝가리어, 토고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이중언어로 자신이 꾸는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등 부문 대상을 차지한 블레싱(보영여고) 학생은 토고에서 한국으로 온 아버지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한국 거주 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우리 학생들과 다문화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참가 학생 5명은 지난 10월 경기도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2022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23일부터 미래인재전형 학교별전형 일반전형 통해 12,112명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을 1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2022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68개교에서 총 12,112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은 특별전형(미래인재전형, 학교별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기간은 11월 23~24일이며, 일반전형의 원서접수기간은 11월 30일~12월 1일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의 평가항목은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으로 취업과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특성화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특성화고(68교) 중 43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한다. 이중 3개 학교(경기기계공고, 서울관광고, 서울영상고)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급변하는 산업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컴퓨터과, 메타버스게임과, 콘텐츠크리에이터과, 반려동물케어과 등 39개 학과를 신설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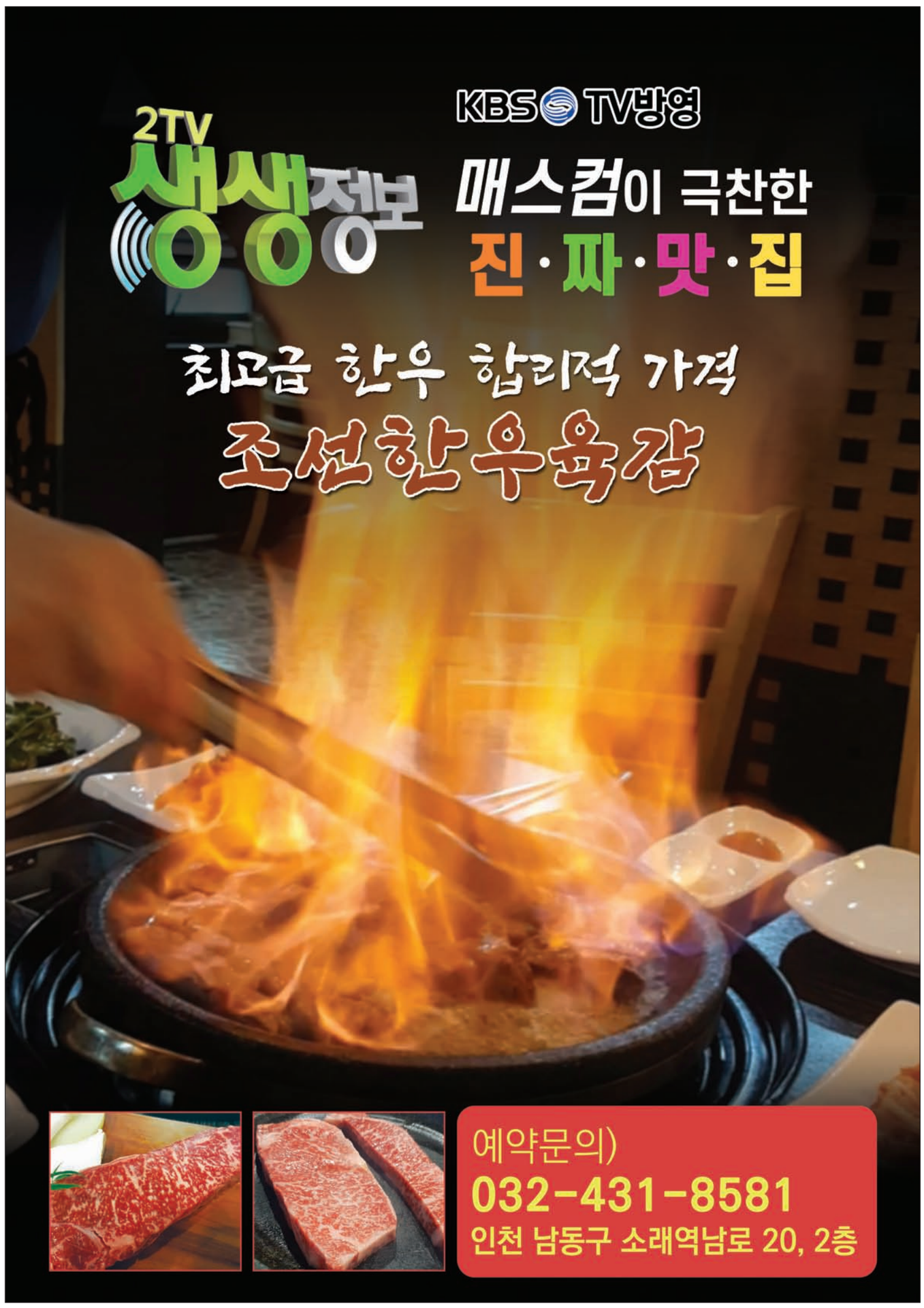
입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에 관한 정보는 각 학교의 누리집 또는 특성화고 입학·취업 누리집 하이잡(high-job.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채널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를 검색해 추가하면 학교별 학과 정보 제공 및 입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를 진학하면 서울교육청의 드림성장지원 바우처를 통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어학 공인인증시험 준비금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은 총 선발인원의 20%, 지방직 9급 기술직은 선발인원의 30%,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9급 기술직은 50%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고졸 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성화고의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정책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다

인천경연초중학교 이음숲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숲 조성 기념식

인천경연초중학교는(교장 이현주)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인천지역 발전 5사 및 한전 연합 ESG경영 사회공헌활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숲' 조성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발전 5사 및 한전 연합의 후원으로 서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청라지역의 초·중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 서구지역에 위치한 포스코에너지 발전사업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발전 5사가 후원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가 힘을 보탰다.

학교숲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와 자작나무, 목련나무, 관목 등 280그루가 식재됐다. 학교숲이 조성되면 학교 내 연간 탄소흡수량 41kg, 미세먼지 10kg(국립산림과학원 자료 참고)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주 교장은 "우리 경연의 교육가족들이 유·초·중학교를 서로 이어주는 학교숲을 '경연이음숲'이라고 이름 지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을 이어주는 숲이 돼 각종 음악회, 영화상영 등으로 마을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에코스마트스쿨인 우리학교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전사 대표들은 "학교 내 친환경 숲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유연 기자 lyy@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인천선학초 남광현 교사

특허청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발명교육대상 수상

인천선학초등학교(교장 정웅섭) 남광현 교사가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을 수상했다.

남광현 교사는 특허청이 주최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에서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2021년 11월 12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시상식은 KINTEX에서 열렸다.

발명교육대상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8명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남광현 교사는 2020년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발명교사인증제 마스터 교사로,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사로서는 처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광현 교사는 2009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정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영재학급 강사 및 운영교사로 인천 관내 발명 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등 발명대회지도교사로 20회 이상 수상했으며, 교사 대상 정규교육과정 내 발명교육 지도 방안 연수 및 다수의 지식재산교육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강의 등이 발명 교육 확산 활동에 공헌한 점이 인정돼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남광현 교사는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5년부터 이어오는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발명교육을 통한 재능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연 기자 lyy@

YOUTH·학부모봉사단 사랑 더하는 연탄배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독거노인 · 저소득 가정 배달하며 나눔 실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지경호)가 지난 10월 30일, 11월 6일 2회에 걸쳐 YOUTH·학부모봉사단 협력학교(9개교) 청소년, 학부모, 지도교사 등 174명과 함께 도원역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학교별 소규모 인원으로 '사랑 The 咸 연탄배달'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 관내 YOUTH·학부모봉사단 협력학교(동인천중, 동산고, 세일고, 송도고, 신명여고, 옥련여고, 인제고, 인천외고, 제일고)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의 플리마켓 활동을 통해 모인 판매수익금 3,840,000원으로 4,800장의 연탄을 마련해 그 의미가 더 크다.

학교연계 네트워크 YOUTH·학부모봉사단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세대 간 공감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긍정적 인성 함양 및 학부모의 학교·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책 청소년정책사업이다.

지경호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 대면하는 봉사활동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YOUTH·학부모봉사단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어느 때보다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 센터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 2호점 개점

인천시 남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장난감 수리센터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구는 지난 10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장난감 수리센터 논현고잔 2호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영유아를 둔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장난감 수리센터 2호점 개점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통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팔고 싶은 것 내가 기획해요!

인천송월초 5학년 창업 박람회 체험

인천송월초등학교(교장 김용성) 5학년은 11월 11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창업 박람회를 실시했다.

고학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5학년 학생들은 여러 진로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다양한 기회를 접한다. 이번 창업 박람회 체험 또한 그러한 진로 활동의 방향 속에서 기획됐다. 학생들이 같은 학년 친구들이 살 것 같은 여러 사업 아이템들을 구안해보고 이를 직접 제작해 판매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창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기업가정신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창업 아이템으로 그립톡, 무드등, 메이크업 부스, 마술 풍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이템을 정말 돈을 주고 살 것 같은지 물어보는 설문 또한 열정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시장 조사를 통해 무엇을 제작할지 결정한 학생들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열심히 찾아봤다. 그리고 이 준비물을 활용해 사업 아이템 샘플을 만들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좋은 점을 더 부각하는 쪽으로 아이템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창업 박람회 행사로 학생들은 조원들과 토의해 최선의 선택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제적 사고를 실천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뜻깊은 사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각각의 사업 아이템을 모의 화폐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주도하는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경제의 개념 및 화폐의 가치와 흐름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천송월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주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유연 기자 lyy@

20년을 지나온 시간 추억하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CI 공모전'&'연청수를 아십니까?' 행사

인천연수구청소년수련관(관장 홍현웅)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청소년수련관 'CI(Corporate Identity) 공모전'과 '연청수를 아십니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I 공모전'은 수련관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축해 수련관의 특성과 독자성이 표현된 이미지나 디자인, 또 알기 쉬운 메시지로 나타내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심사 기준을 반영해 1등 1명(상금 50만원), 2등 1명(상금 10만원), 3등 1명(상금 5만원)을 선정하고, 수상자 발표는 12월 중 연수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와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연청수를 아십니까?' 이벤트는 지난 20년 동안 연수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하였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벤트로 수련관에 종사하였던 직원을 비롯해 프로그램 참가자, 자원봉사자 등 연수구수련관을 기억하는 이들이 참여 가능하며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사진과 사연, 영상을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해당 파일을 첨부해 수련관 이메일(pot0924@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고교학점제 준비 착착

2025년 전면 적용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 각 학교에 안내서 제작·배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로 안내했다.

이행 계획에는 고교학점제 교과 전담 순회 교사 운영과 교·강사 인력풀 구축 등 현장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실무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로 찾아가는 밀착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현장 지원 외에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학기 당 200강좌 개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2022년 기준 62교로 확대(2024년 모든 일반고 학점제형 교육과정) ▶지역 연계 교과융합 진로탐구 활동 프로그램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연수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학생 선택과목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등 모든 교원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달려 있다"며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미래 필요한 역량 키우는 첫 발걸음

인천 영종초 3학년 대상 '비봇 SW 코딩 프로그램' 진행

인천영종초등학교(교장 전정심)에서는 지난 10월 27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연계교육과정 '비봇 SW 코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인천 중구교육혁신지구사업의 하나로 10월 25일~29일 총 2차시로 진행됐다.

비봇 코딩 프로그램 1차시는 로보언어의 뜻을 알아보고, 비봇을 관찰해 그 구조를 탐색했다.

더불어 학생이 직접 로봇이 돼 명령어에 따라 신체를 움직여봄으로써 비봇이 움직이기 위해 어떤 명령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봤다.

2차시에는 본격적으로 비봇의 조작 방법을 익히고, 비봇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비봇에 명령어를 입력한 후, 그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코딩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참여한 3학년 박모 학생은 "비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하고, 버튼을 눌러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비봇이 내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을 땐, 매우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3학년 이모 학생은 "처음으로 코딩을 경험해봤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코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코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3학년 학생들은 마을연계교육과정 '비봇 SW 코딩 프로그램'을 계기로 비봇을 직접 조작하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의사소통을 이해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컴퓨터 사고력과 같은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이유연 기자 lyy@

기다림 속에 깊은 맛 기대하며…

해서초 학부모회, 아이들과 함께 매실청 담그기 활동

인천해서초등학교(교장 김윤숙) 학부모회는 지난 11월 11일 '매실아, 100일 후 만나' 매실청 담그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에 아이들과 꼭지를 따고 담군 것을 시작으로 3개월 이상 숙성시켜뒀던 매실을 건지고 맛있는 매실청을 아이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같이 활발한 학부모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학부모회 행사이다.

인천해서초 학부모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학부모행사로 준비하고 진행하던 놀자캠프, 책나눔 행사 등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신 '매실을 아이들과 담궈 매실청을 만들면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기획했다.

방역관계 상 해서초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20여 분 내외의 '매실팀'을 구성했다.

'매실아, 100일 후 만나'라는 행사명부터 행사의 과정(재료의 구입-학생수업과 참여방법-보관-100일 후 건지기 행사)을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를 통해 인천해서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따뜻하고 단단한 교육공동체로서 연대의 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뜻깊은 행사였다.

총 20L 매실 18통을 완성했으며 학생들은 매실의 꼭지를 따고 설탕에 절이는 과정에 참여(2021.6.21.~6.24.)하고 숙성의 기간 동안 숙성고를 들어가 보며 매실이 익는 과정을 관찰했다. 매실을 건지는 날(2021.11.10~11.11), 온 학교에 매실향이 퍼지며 슬기샘이라 불리는 모두의 어머니, 학부모님이 그 어떤 인간문화재보다 아름답고 정성된 손길로 아이들 앞에서 매실 건지는 시범을 보여줬다.

매실이 담긴 작은 병에는 "기다려 줘서 정말 고마워" "내 몸에 매실 참 좋아요!" "해서표 매실청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구가 깜찍하게 적혀있었다.

매실청 담그기 활동을 계획한 인천해서초등학교 유영화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에게 매실청 담그는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에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던 어머니들의 노고가 모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같이 활동해 준 학부모회 어머니들과 시설과 재료 구입 등 도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숙 교장은 "한 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의 교육 지원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더 크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 교육 지원에 정성을 쏟는 인천해서초 학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생각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유연 기자 lyy@

북구도서관, 어린이 작가들의 이야기

마을방과후학교 '오!감성의 탄생' 도서 출판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관장 나영희)이 2021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인 '오! 감성의 탄생'을 통해 10명의 어린이 작가가 책을 출판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오! 감성의 탄생'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글쓰기 및 출판 수업이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 이뤄진 김한솔이 작가(출판스튜디오쓰는하루 대표)와 김아영 작가(행복한재수가있는출판사 대표)의 글쓰기 및 출판·편집 지도를 바탕으로 10명의 어린이 작가가 개성과 감성이 넘치는 자신만의 도서를 출판했다.

나영희 관장은 "앞으로도 마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적극 발굴해 마을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끼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판된 도서는 11월 24일부터 북구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되며, 관련 사항은 북구도서관 마을교육지원과(032-363-50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섭 기자 ays@

자연생태 속에서 환경을 배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래습지에서의 하루' 운영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은 2021 동부생태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인 '소래습지에서의 하루'를 운영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3개 코스를 걸으며 소래습지의 역사, 나무 이야기, 갯벌 이야기, 염전 이야기, 새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미션을 풀어나가는 내용으로 관내 초, 중학교 생태환경동아리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소래습지에서의 하루(https://bit.ly/소래습지에서의하루)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래습지의 나무, 염색식물, 염전, 갯벌 생물, 새의 모습 등 습지 생태계의 생물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다.

김동호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력을 키우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며 "인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인천형 생태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청호초, 청호 한울림 체육놀이 한마당

인천청호초등학교(교장 권영민)는 '2021 청호 한울림 체육놀이 한마당'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한울림터에서 학년별로 운영했다.

다양한 체육 놀이 활동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기로 스포츠 정신을 기르며, 학급 친구들과의 우애와 협동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또한, 코로나19방역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유행으로 위축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높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유연 기자 lyy@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가래떡 나눔행사 시행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및 가래떡데이를 맞아 출근길 직원들에게 가래떡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직원들간 소통부재 및 침체된 직장분위기 개선을 위해 출근길 나눔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가래떡 나눔행사는 우리고장 특산물인 강화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눔으로 직원들간의 정을 나누고 우리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임단철 교육장은 "직원들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 행복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색조 화장품에 눈을 뜬다

AGE 20's , 하루종일 촉촉한 피부 연출
롬앤, 매트한 제형의 마스크 착용 위한 틴트
오에니르, 부드럽고 편안한 소프트 립 내놓아
키스뉴욕, 가을 무드 담은 네일 4종 선보여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아이메이크업 일색이던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은 팩트와 립, 그리고 화려한 손 연출을 위한 네일 제품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고 있다.

우선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은 투명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연출해 주는 에센스 성분 함유의 커버 팩트들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마스크 일상화를 겨냥해 마스크 묻어남을 최소화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포인트 제품으로는 립 관련 제품들이 보습과 영양을 더하는 기능과 결합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투웨니스)는 하루 종일 촉촉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연출해주는 '에센스 커버 팩트 HE'를 새롭게 출시했다.

'콜라겐 바이옴 에센스'를 73% 함유해 메이크업과 동시에 안티에이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에센스 커버 팩트다. '콜라겐 바이옴 에센스'는 탄력의 대명사인 '콜라겐'과 피부의 마이크로 바이옴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주 비단망사추출물'을 담아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오래도록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비단망사추출물은 AGE 20's만의 최신 특허 성분이다.

또한 이 제품은 에센스 커버 팩트 시즌 최다로 순도 99.9%의 24K 골드 성분을 함유해 극강의 광채를 표현해준다. 이와 함께 피부 필수 성분인 아미노산과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시크릿 3중 파우더'를 적용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커버해준다.

제품은 피부 결을 균일하게 잡아주는 '모던 베이지'와 볼륨감 있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생기 핑크', 피부 톤을 한층 더 밝혀주는 '톤업 화이트', 다가올 겨울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의 '리얼 골드 옐로우' 등 4가지 색상을 더해 정교한 피부 톤 보정을 도와준다.

또한 이마와 좌우눈가 및 입가 등의 부위를 일컫는 일명 '스타존'의 광채 지속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누적커버 효과에 도움을 주는 등 총 44가지의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

바닐라코는 마스크 착용에도 묻어남이 적고 온종일 매끈한 새틴 피부를 유지해 주는 '커버리셔스 스킨 핏 쿠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얇지만 강력한 밀착력을 선사하는 바닐라코만의 틴티드 핏팅 테크놀로지 공법으로 매끈하고 화사한 새틴 같은 피부 연출을 돕는 베이스 제품이다. 부드러운 발림성의 미세 입자가 피부 결에 맞춘 듯 밀착되어 마스크 착용 시 들뜸과 무너짐을 최소화해 하루 종일 매끈한 피부를 유지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습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이트히아루론 앰플과 오일 컨트롤 파우더를 함유해 촉촉한 피부로 케어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유분기를 줄여 준다.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피부 밸런스를 맞춰 주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서도 장시간 무너지지 않는 깔끔한 피부 결 연출이 가능하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순한 데일리 베이스로 피부 자극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병풀추출물, 아시아틱애씨드, 마테카식애씨드 등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시카 카밍 콤플렉스가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해 준다.

제품은 화사한 생기를 더해주는 로즈베이지 컬러로 화사한 새틴 피부를 연출해 주는 21 로제와 홍조 피부의 붉은 기를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돈하기에 좋은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인 '23 피넛' 2종 구성이다.

립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돼 관심을 모은다. 롬앤은 1년여간 '매트 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 청취와 품평 및 테스트를 거쳐 '블러퍼지 틴트'를 내놓았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는 벌써 10만개 이상의 선 주문이 완료되며 주목 받은 이 제품은 뭉침 없이 부드럽게 펴 바를 수 있고, 쉽게 퍼지는 스머징 연출이 매력적이다.

기존 매트한 제형의 틴트 제품들에 비해 뻑뻑함이 크게 개선된 쫀쫀한 텍스처로 누구나 쉽게 매끈한 매트립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각질이나 건조함이 부각되지 않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가벼운 사용감으로 마스크 착용에도 쉽게 묻거나 번지지 않 아 가을, 겨울 립 제품으로도 적합하다.

토니모리는 겨울철에 거칠고 건조해진 입술에 보습과 영양을 부여하는 '프로폴리스 타워베리어 립 케어 라인' 2종을 출시했다. 제품은 스틱과 크림으로 구성됐으며 특별한 타워베리어가 함유돼 입술에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채워준다.

청정 브라질 국토의 약 3%에서만 추출이 가능해 더욱 진귀한 그린 프로폴리스와 함께 감로꿀, 현삼으로 구성된 토니모리만의 특허 성분 타워베리어는 3중 꿀 벽의 힘으로 거칠어진 입술 장벽을 탄탄하게 관리해 준다.

스틱 타입 제품은 보습에 탁월한 세라마이드, 판테놀, 베타글루칸의 3가지 복합 성분이 함유돼 데일리 립 보습 아이템으로 제격이고 크림 타입은 세라마이드, 판테놀, 베타글루칸 외 시어버터와 히알루론산까지 총 5가지의 복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남다른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

오에니르는 부드럽고 가볍게 밀착되어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소프트 립스틱으로 매트 립스틱의 단점인 각질 부각, 건조함 등을 보완해 벨벳같이 부드러운 텍스처로 입술 주름을 매워 매끈하게 깔끔한 '이지 소프트 립'을 선보였다.

시스루 매트 텍스처로 투명한 발색을 보여주는 '이지 소프트 립'은 맑게 발색되는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산뜻한 하루에 어울리는 맑은 레드 '비비레드'와 편안한 날 함께하기 좋은 차분한 로즈 '코지로즈', 따뜻한 기분을 선사하는 뉴트럴 베이지 '코코베이지',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주는 부드러운 플럼 '드라이 플럼'으로 다양한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다.

가을에도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네일 제품도 출시됐다. 30년 전통의 네일 장인 키스뉴욕이 선보인 붙이는 젤 네일 '마이 뮤즈 가을 컬렉션' 4종은 세미롱 길이의 코핀 쉐입으로 손가락을 더욱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와 힙한 무드를 동시에 선사한다. 굽거나 말릴 필요 없이 꾹 눌러 붙이면 언제 어디서나 3초 만에 완성되는 원터치 리얼 젤 네일팁이다.

부드럽게 강한 소프트 에어 핏(SOFT AIR FIT)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적의 프리엣지 두께로 외부 자극에도 벤딩(구부러짐) 현상을 최소화하고, 큐티클 라인은 초경량 몰드로 특수 설계해 들뜨지 않는 밀착감을 자랑한다. 또한 더욱 슬림해진 점착제를 적용해 머리카락 끼일 틈까지 철벽 차단하여 진짜 내 손톱 같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여성 약 600여명의 손톱 사이즈를 꼼꼼하게 분석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12개의 팁 사이즈가 내 손톱에 완벽하게 밀착된다. 팁과 점착제 모두 유해물질 결과 안정성을 인증 받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한 4종은 화려한 레오파드 패턴의 강렬함과 고급스러운 누드 컬러로 더 핫하고 더 힙한 '와일드 캣', 웜톤 쿨톤 구분 없이 어느 톤에나 잘 어울리는 딥한 버건디 컬러와 깔끔 리얼한 도트 포인트로 우아하고 매혹적인 '핸드 포크', 뉴트로 감성의 섬세한 패턴과 무게감 있는 네이비 컬러를 함께 매치해 기품 있는 무드를 완성하는 '페르시아', 강렬한 불꽃 드로잉과 붓 터치에서 느껴지는 시크함에 블랙과 누드 컬러의 조합으로 유니크한 매력을 더하는 '힙 샷'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성장하는 학생
지속 가능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
모두의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3조 1820억원 편성

위드코로나 시대 학교지원 강화·미래교육 전환 따른 교육환경 구축 중점 반영

충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본예산 2조 7,486억원 대비 4,334억원 증가(15.8%)한 3조 1,8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학습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 반영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1년보다 4,473억원(20.0%) 증가한 2조 6,873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대부분인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4% 증가한 3,503억원, 자체수입은 49억 원(33.2%)이 증가한 195억 원을 편성했고, 계속비 사업의 증가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 예산 규모는 2019년, 2021년 2회 추경과 비슷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2022년 정책추진 5대 방향에 맞게 ▲학교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회복 ▲안심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미래시민을 기르는 주도성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세출의 주요 사업 편성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북교육회복지원 사업으로 1,082억원을 편성했다.

학습진단, 심리·정서 진단 및 상담 지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 튜터링 등 교육 결손 회복에 466억원을 편성했고, 유아발달 지원, 직업계고 원격수업 지원,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맞춤지원 등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에 77억원 규모로 정했다.

과밀학급 해소,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회복 지원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539억원을 편성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 방역 등을 위해 136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원격수업을 대비해 중식지원비 37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학교 방역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해 9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 등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182억원을 반영한다.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더배움학교와 두드림학교에 117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진천 지역에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초·중등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자료개발과 현장지원단 운영,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수업협력 강사를 운영한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는 622억원을 편성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119억원, 고교교육력 도약 및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에 44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및 여건개선을 위해 86억원을 투자하고, 직업교육 환경개선과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30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생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하여 58억원을 편성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2억 원을 반영했다.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운영에 41억원, 환경교육에 4억원, 영재교육에 12억 원 등 총 88억원을 편성하고, 특히, 충북과학고 교사보수 및 공간 복합화 예산(총 사업비 90억원) 2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 30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혁신 질적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지원 37억원, 학교혁신 지원 7억원, 행복교육지구 67억원과 행복씨앗학교 19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101억원, 민주시민 교육 6억원,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비 7억원 등 총 24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도서관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총 169억원을 지원하고, 학교 체육시설과 급식시설 개선에 2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충북체육고 기숙사(2024.2. 완공, 총 사업비 90억원)와 수영장 증축비(2024. 8.완공, 총 사업비 179억원) 21억원 등 총 291억원을 반영했다.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16억 원과 사립유치원 지원 89억원 등 유치원 지원에 105억원을 편성했다.

학부모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2,968억원을 편성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비 81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27억원,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 198억원을 편성한다.

원격수업일·토공휴일 등 학기 중 비등교일에 취약계층학생 대상 중식 지원 94억원, 저소득층학생 정보화교육지원 20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학생 1인당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 11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2022년 주요 시설사업으로 과밀학급 해소,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바라던 현안 해소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진천·단양·영동·증평·음성 등 5개 교육도서관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증축에 126억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85억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화재예방 등 학교안전시설 개선에 465억원, 공간혁신 사업인 행복감성 미래교실 사업에 161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274억원을 반영했다.

최경환 기자 ohy@

충주대원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수상

형진성 학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 전자명찰' 발명

충주대원고등학교(교장 김인섭) 2학년 형진성 학생(사진)이 제3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발명전시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주대원고(지도교사 윤재철) 2학년 형진성 학생이 발명한 작품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 전자명찰'이다.

이 자동 전자명찰은 BLE 비콘(Bluetooth Low Energy Beacon, 저에너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을 활용하여 학교에 등교하면 위치별 자동으로 설정된 이름을 보이게 하고, 하교하면 이름을 보이지 않게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명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토론이나 발표, 경기를 할 때, 명찰에 팀 이름이나 마크 또는 색상을 넣어 좀 더 확장된 기능의 명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발명품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거나 지워지게도 할 수 있어 학교·관공서·기업·박람회 등 여러 곳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대통령상 뿐 아니라 충북과학고(지도교사 강남수) 2학년 박준혁 학생은 라벨인식 페트병 분류장치를 고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발명품은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을 수거할 때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만을 수거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적외선 거리센서와 RGB 센서 혹은 페트병 라벨 유무 학습 AI가 이식된 카메라 등에 의해 페트병을 스캔하게 되고, 라벨인식을 통하여 분류하는 장치이다.

제3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은 11일 오후 2시 킨텍스(경기 고양) 1전시실에서 이뤄졌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에 따르면 각종 과학 발명대회에서 연이어 최고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려는 충북미래인재육성모델의 교육 성과가 활짝 꽃피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작품으로 설계 제작하는 프로젝트 탐구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창의공작소인 무한상상실 구축과 학생 메이커동아리, 메이커 교사연구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융합교육 프로젝트 연구를 위한 STEAM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지역 거점형 발명교육센터의 현대화 및 최신 기자재 지원 등으로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최경환 기자 ohy@

원어민 교사,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

충북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원어민 문화체험의 날 운영

충청북도국제교육원(원장 오영록) 중부분원은 11월 11일 하반기 '원어민 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국인 교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괴산 연풍 한지체험박물관 및 괴산마을 학교 축제를 방문하는 등 원어민 교사와 지역동행 탐방학습을 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과 원어민 교사가 함께 '한지 제작' 실습에도 참여해 전통한지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한지의 우수성을 탐구했다.

괴산 마을 학교 축제 등을 방문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성 탐색 및 세계시민교육의 수업디자인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인과 원어민 교사가 지역 문화를 탐방하고 지속가능성 탐색의 기회를 자주 가져 세계시민 교육과 지속가능성 교육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등 의미 있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기자 ohy@

충북교육청, 자기 주도성 회복 돕는다

'학생주도 교육복지동아리' 활동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자기 주도성 회복을 위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학생주도 교육복지동아리'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또래·사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아리 규칙, 내용 등을 기획하는 과정 및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사회성을 회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현재 초 4교(낭성초, 오창초, 충주예성초, 충주중앙초), 중 4교(경덕중, 운호중, 제천중, 은여울중), 고 3교(충주상업고, 충주중산고, 진천고)로 총 11교가 운영 중이다.

레고동아리, 스포츠동아리, 탐험동아리, 드론동아리, 독서동아리 등 각 학교 특성에 맞게 다회성 활동으로 계획하여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석고방향제, 도자기만들기 등 공예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이웃에게 전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 향상 및 교육복지 실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향후 장래희망을 설정하는 데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생주도 교육복지동아리를 통해 주도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회복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기자 ohy@

광주교육청, 내년 예산 2조 5920억원 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회복·광주형 미래교육 전환·교육안전망 구축 중점 투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3,579억 원(16.0%) 증가한 2조5,92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70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99억 원, 기타이전수입 109억 원, 자체수입 61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광주형 미래교육 전환과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학생의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2,596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242억 원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회복 및 교외체험학습 등 사회성 회복으로 277억 원 ▲학생별 맞춤형 교육 및 정서회복지원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로 215억 원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등 직업계고 지원 227억 원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학교운영비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6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람중심 AI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광주형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1,206억 원을 반영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지원으로 445억 원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으로 323억 원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에서 탈피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에 270억 원 ▲학생 수요 기반 고교학점제 도입 마련으로 134억 원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로 34억 원을 배정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5,068억 원을 조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13억 원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인력 확보 및 물품 구입 128억 원 ▲유·초등 돌봄 지원 55억 원 ▲화장실 및 냉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410억 원 ▲생애단계별, 배려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3,262억 원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시,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내년 학교무상급식 식품비를 유·초·중·특수학교는 2.95%, 고등학교는 5.9% 인상하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단가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해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와 재원을 분담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25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시책사업 추진에 1조6,331억 원, 학교 신증설에 719억 원을 편성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교육 회복 지원에 중점 투자하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 지원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교육청, 상생과 협력의 시대 연다

전교조광주지부 · 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2일 중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개회식)을 가졌다.

본교섭(개회식)에는 장휘국 교육감, 김재옥 전교조광주지부장, 윤정현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을 포함한 20명(교섭당사자 각 10명)이 참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양측 교섭대표위원인 장휘국 교육감과 김재옥 전교조광주지부장, 윤정현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의 인사말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전교조광주지부, 7월 7일 광주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두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섭 창구가 단일화됐다. 시교육청은 공동교섭단과 4차례의 절차 협의 끝에 실무교섭 대표위원을 소관 과장으로, 실무교섭은 월 3회로 하는 단체교섭 절차 합의에 이르렀다. 공동교섭단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본교섭(개회식)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회식은 지난 2018년 3월 12일 전교조광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이후 3년 만에 광주교사노조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단체교섭이다.

주요 요구 사항은 교권보호 및 교육여건 조성·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 신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연구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등 전문, 본문 100개조 617개항, 부칙 4개조 6개항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동교섭단은 개회식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교육의 시대에 발맞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광주교육을 완성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자연과학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

등굣길 가래떡 나눔 · 투호 던지기 등 민속체험 · 계기교육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가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자연과학고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등굣길 가래떡 나눔 행사로 시작으로 점심시간에는 탈곡 체험,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농업인의 날'의 유래를 알아보며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하는 계기교육도 이뤄졌다.

광주자연과학고 1학년 한 학생은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던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다시 쓰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 농촌문화와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앞으로는 빼빼로가 아니라 가래떡을 선물하며 농산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자연과학고 전귀복 교장은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광주 유일의 농생명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광주자연과학고의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영농인의 자부심과 마인드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특수교육 내실화

사회복무요원 168명 대상 '2021 온라인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12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광주 전체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 특수학급 등 총 76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168명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10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지원 방법 함양, 장애인권의식 신장 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연수 영상을 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어서와~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처음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괜찮아! 유치원 특수학급은 처음이지? ▲차이나는 클라스! 초등학교편 ▲이번엔 중학교다! 같은 듯 다른데? 등 3차시로 구성됐다.

연수 내용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학교급별 상황이 충분히 반영됐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와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인력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자신이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인권감수성이 살아있는 교육지원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면 좋겠다"며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 명진고, 고교학점제 홍보관 운영

2023년 일부 도입, 2025년 전면 시행

광주광역시 명진고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내에 고교학점제 홍보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3년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전면 도입된다.

10일 명진고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홍보관 운영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홍보관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홍보관에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컨설팅 부스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홍보물이 전시됐다.

이번 고교학점제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2022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AHA (주)아하정보통신

공기살균정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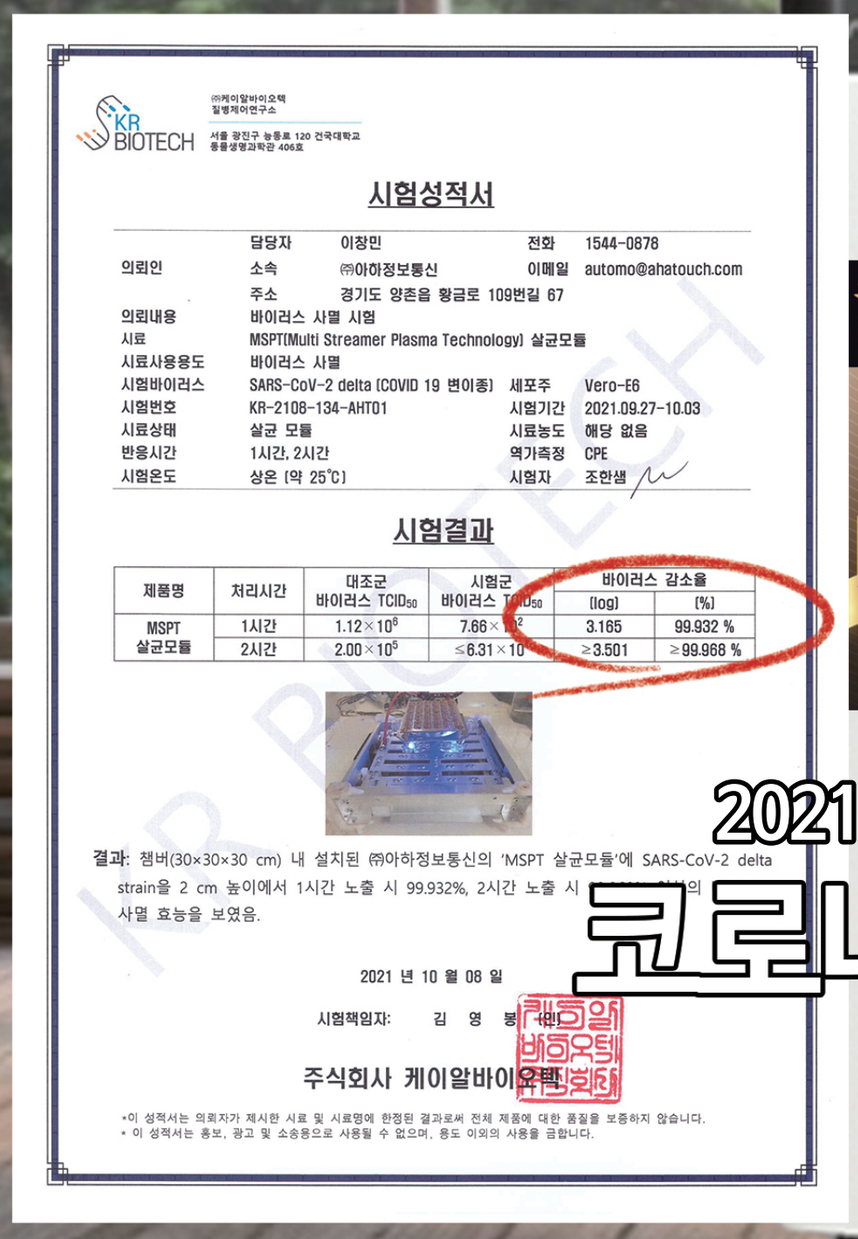
puri TOPIA®

물은 정수기로, 공기는 퓨리토피아!

필터 없이 미세먼지, 살균, VOCs, 악취 등 최고의 제거 성능을 발휘

슈퍼박테리아 세균
99.9% 제거

mRNA 바이러스
99.9% 제거



㈜케이알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 406호

시험성적서

의뢰인	담당자	이창민	전화	1544-0878
	소속	㈜아하정보통신	이메일	automo@ahatouch.com
	주소	경기도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67		
의뢰내용	바이러스 사멸 시험			
시료	MSPT(Multi Streamer Plasma Technology) 살균모듈			
시료사용용도	바이러스 사멸			
시험바이러스	SARS-CoV-2 delta (COVID 19 변이종)		세포주	Vero-E6
시험번호	KR-2108-134-AHT01		시험기간	2021.09.27-10.03
시료상태	살균 모듈		시료농도	해당 없음
반응시간	1시간, 2시간		역가측정	CPE
시험온도	상온 (약 25℃)		시험자	조한샘

시험결과

제품명	처리시간	대조군 바이러스 $TCID_{50}$	시험군 바이러스 $TCID_{50}$	바이러스 감소율 (log)	바이러스 감소율 (%)
MSPT 살균모듈	1시간	1.12×10^{6}	7.66×10^{2}	3.165	99.932 %
	2시간	2.00×10^{5}	$\leq 6.31\times10$	≥3.501	≥99.968 %

결과: 챔버(30×30×30 cm) 내 설치된 ㈜아하정보통신의 'MSPT 살균모듈'에 SARS-CoV-2 delta strain을 2 cm 높이에서 1시간 노출 시 99.932%, 2시간 노출 시 [illegible]의 사멸 효능을 보였음.

2021 년 10 월 08 일

시험책임자: 김 영 봉 (인)

주식회사 케이알바이오텍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 한정된 결과로써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성적서는 홍보,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공기살균정화기 puri TOPIA
FDA 의료기기 등록

FDA
의료기기 등록

2021.10.08 바이러스 사멸 시험 결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99.96% 제거

제품 칼라

퓨어 화이트(50평, 2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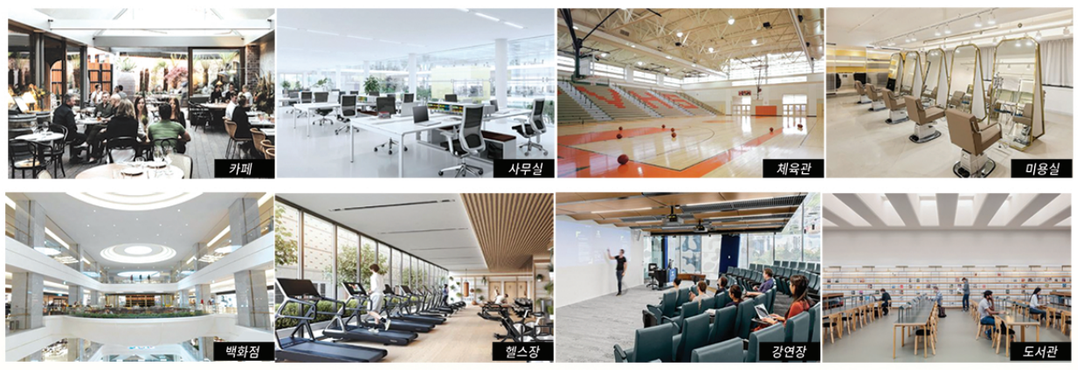
내츄럴 그레이(50평, 25평)

Dimension

- 25평형
- 50평형
- 90평형
- 150평형

병원, 공연장, 노인시설, 학교, 유치원, 쇼핑몰, 사무실, 체육시설, 카페, 가정등 다양한 공간~

사용 공간에 음이온이 분당 2억개까지 발생하여 밀폐된 공간의 냄새를 제거(정화)하고 사람들이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정화합니다.



구매문의 : 하나유통 010-3740-3027

교육자치 시대 '지역교육과정 준비' 시동

전남교육청,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남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한국교육개발원 등 16개 연구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참여)와 함께 '지역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정책기획과와 전남교육연구정보원 및 교육정책연구소 직원들을 비롯해 온라인 회의시스템으로 접속한 전남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 소속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교육과정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사로 나선 부산대 박창언 교수는'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교육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지역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역교육과정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지역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 △주민 요구 수렴 방안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서 집필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과서 질 관리 △저작권 분쟁 예방 등의 과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교육자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범사례"라며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여러 과제들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시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남교육과정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초 '전남교육과정개발추진단(단장 위경종 교육국장)'을 구성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향후 이 추진단을 확대해 도내 407명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전남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살려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거버넌스 산하에 기획단, 숙의단, 운영단 등의 추진체를 두고 서로 긴밀히 협업해갈 방침이다.

김호현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농산어촌유학생들 '신나는 농촌체험'

전남농협 주최 곡성 봉조마을 팜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의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학생들이 12일 전남 농촌마을에서 부모와 함께 신나는 농촌체험 학습을 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이날 팜스테이 마을인 곡성군 오곡면 봉조마을에서 2학기 전남농산어촌유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팜스테이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농촌체험에는 곡성 담양 등 전남 지역 14개 초등학교로 전학 온 전남농산어촌유학생 38명과 학부모 26명 등 총 64명이 참가해 대봉감 수확, 농촌음식 만들기 등 늦가을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울에서 유학을 왔다는 한 유학생은 "서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 전남에 내려오니 날마다 학교에 가고 이렇게 농촌체험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체험학습 현장을 찾은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벌써 2개월 이상 유학생활을 하면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느꼈을 테지만, 오늘은 더 색다른 농촌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수확해보고, 농촌음식도 먹어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전학 와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1학기 82명에 이어, 2학기에는 165명의 도시학생들이 전남 37개교(초25교, 중12교)에서 유학 중이다.

김호현 기자 2580news@daum.net

여수 부영여고,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전국 대상

'타임 in 조선'팀 2017년에 이어 두번째 쾌거
기후 변화 심각성 주제로 협업 · 창의력 발휘

부영여자고등학교(교장 권성진) '타임 in 조선'팀이 11월 12일 2021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이하 대회)에서 고등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를 주도하라'는 슬로건 아래 특허청 주최(주관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로 열렸으며 우수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전국 시·도예선대회를 거쳐 통과한 16개 지역의 50여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타임 in 조선'팀은 주어진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과제별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타임 in 조선'팀은 2학년 학생 6명(김윤지, 이수연, 여나연, 정하나, 서지영, 박하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뛰어난 협업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해결하였다.

학생대표인 김윤지 학생은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선생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성진 교장은 "리더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으며, 지도를 맡은 양덕순선생님과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모두 반납하여 준비한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학생들과 지도선생님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영여고는 과학캠프(11월 6일~11월 7일)를 비롯해 선·후배가 함께하는 과학실험(11월 22일~11월 23일) 등 연중 다양한 과학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탐구심과 문제해결력 및 학력 신장에 매진하고 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목포공공도서관, 청소년 봉사활동 우수터전 선정

목포공공도서관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고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전라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터전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은 지역 청소년들의 봉사 참여도 등 4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자원봉사 터전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 기관을 선정한다.

이에, 목포공공도서관은 봉사활동 참가자 실적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목포공공도서관 오준경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꾸준히 도서관에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해주신 청소년들에게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학생들 모두가 그림동화 작가

화순 동복초, 그림동화책 전시회 개최

화순 동복초(교장 기향숙)는 2021학년도에 3~6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해 11월 5일 13권의 그림동화책을 전시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 있던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골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기쁨과 책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 결과 6학년 학생들의 "모니" "시간카페" 5학년 학생들의 "달토끼" "베베" "고양이가 된 은결이" 등의 그림동화가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양건 학생은 "저는 평소에 지구 온난화와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림책을 보고 사람들이 지구와 우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전시된 그림동화책을 살펴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말씀과 함께 매년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 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백정애 동화작가는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그림책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성장 과정 중 이번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작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그림책을 완성해가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학교 담당자는 전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신안 장산초, '장산들노래' 공연 한마당

장산초등학교(교장 조민철)는 지난 11월 11일 강당에서 '장산들노래' 공연 한마당을 개최했다.

'장산들노래'는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를 짓는 장산도에서 대대로 내려온 노동요로서 장산도 주민의 삶을 대표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장산초등학교에서는 '장산들노래'를 학교 특색교육으로 정해 매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3~6학년 학생들이 창가수(노래), 모쟁이(모 심는 사람), 치배(악기), 양반, 지게꾼 등 '장산들노래'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공연을 선보여 전통문화 계승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장산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방과후 시간에 모여 국악 장단과 악기 연습, 노래 부르기, 모쟁이 춤 연습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역에 위치한 '장산들노래 전수관'과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연에 참여한 5학년 정모 학생은 "작년까지는 모쟁이 역할을 해서 조금 심심했는데 올해는 징을 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말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장산도의 전통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며 전통계승 의지를 밝혔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취급품목현황

회사명	구분	주요품목
㈜엘림	친환경 바닥재	천연 바닥재, 치장마루재, 시스템 바닥틀, 이중바닥재
㈜유창	금속 마감재	진 금속천정재, 벽천정, 흡음재, 전문 납품 시공
마루 다움	바닥 마루틀	모듈러 시스템 바닥틀 전문 납품, 시공
공간 너머	디자인 벽판넬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벽판넬
블루 보드	황토 패널	실내벽체 마감패널, 벽천장 흡음재, 준불연패널
HS패널	금속제 패널	각종 건축물 외벽패널, 크린룸 & 내장 패널 라인
㈜에어블탑	계단 논슬립	논슬립, 도막형 바닥재, 미끄럼 방지 포장재
㈜원탑	연결 복도	외부연결본고, 고급스텐차양 전문 납품, 시공
삼진우드	조달우수제품	천연 합성목재, 합성목재데크, 울타리
에바킹	공기살균기	살균99.99%효과 반영구 필터 특허제품

명석산업/월송건설
대표 김 호 현 010-6533-8883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246(우산동)
T.(062) 251-1400 F.(062) 251-1800
▶지사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160-1 빛타워 201호
T.(061) 333-1401 F.(061) 333-1402
E-malie : superkhh@naver.com

전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3조 8,626억 원

올해보다, 4,377억 원 증가… 교육적 회복·교육복지사업 추진 등 중점 편성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4,377억 원(12.8%) 증가한 3조 8,626억 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1년도 보다 4,228억 원(14.1%) 증가한 3조 4,2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1억 원(2.5%) 증가한 3,76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58억 원(9.87%) 증가한 650억 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28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05억 원, ▲교육복지 2,295억 원, ▲보건·급식 1,59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7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132억 원, ▲평생교육 148억 원, ▲인건비 1조 9,051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645억 원을 반영했다.

이 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특별 지원에 19억원,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지원에 44억 원,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 지원에 197억 원,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25억 원, 각급학교 노트북 및 학생용 태블릿 구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113억 원, 맞춤형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1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18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423억 원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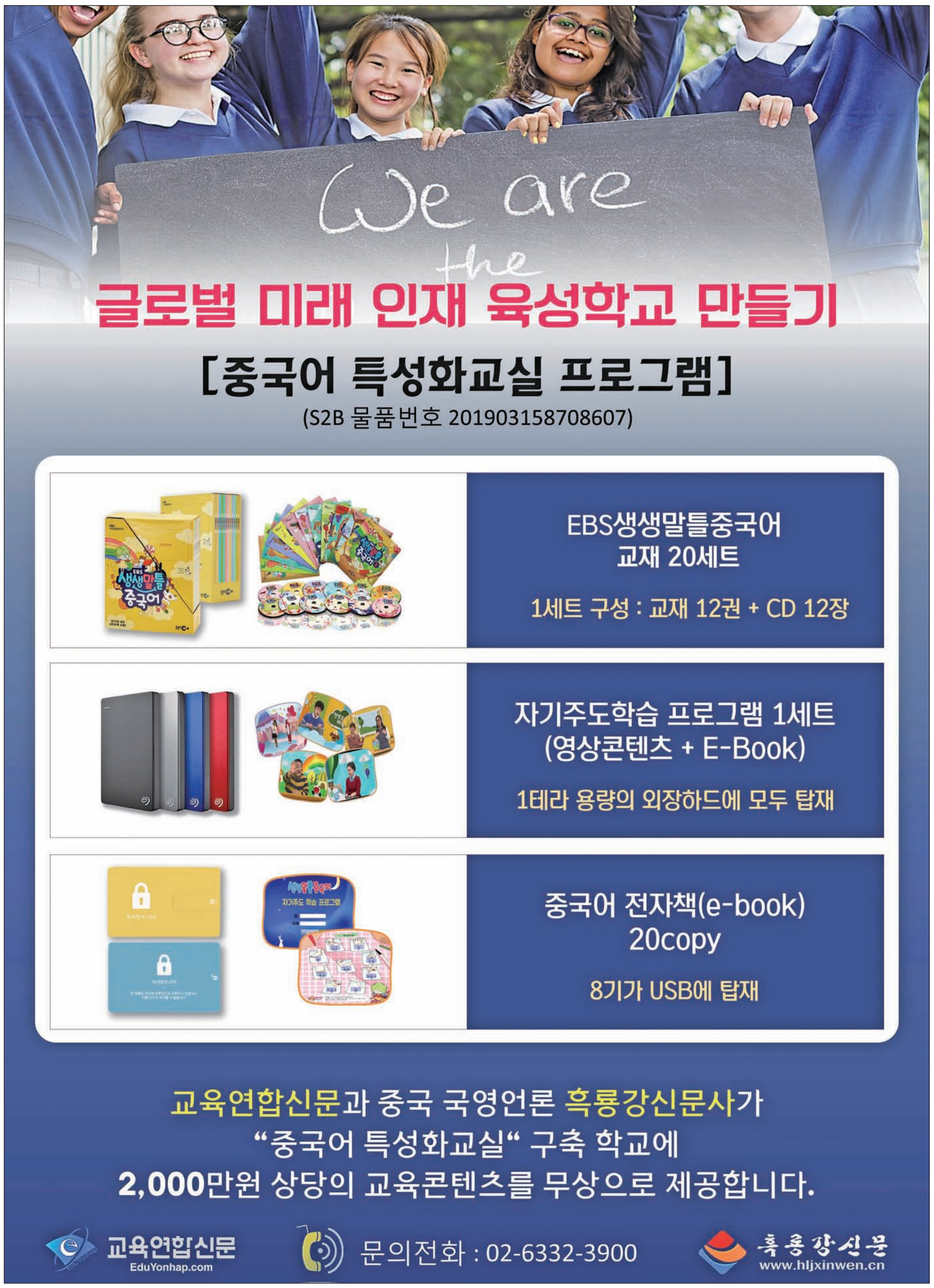
학교자치 복합 공간 설치, 농어촌 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스포츠클럽 위탁 용역사업,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품질검사를 포함한 교복구입비 지원, 학생 상담·치유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및 복지사업에 4,202억 원을 반영했다.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학습자중심 활동공간을 위한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 공공도서관 통합적 공간 혁신, 특성화고 환경개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4,578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2,301억 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52억 원(유치원 539억, 어린이집 613억),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 원을 배정했다.

학교신설비는 2022~2024년도 개원(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원(교)에 577억 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6억 원, 전주화산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에 45억 원 등 모두 648억 원을 반영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1.4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1,038억원이 증액된 2조 2,934억 원(전체예산의 59.9%)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제출되는 2022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우형 기자 jwh@



전북교육청,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사진 포스터 동시 3개 분야서 1,150편 접수 총 42편 선정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너도나도 공모전 작품을 접수했다. 그 결과 사진 205편, 포스터 79편, 동시 899편 등 총 1,150편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915편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1, 2차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8편 등 총 4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을 살펴보면 사진은 번암초 강대호 교사의 '일상에 친구를 더해서'가, 포스터는 서전주중 김나영 학생의 '함께라서 행복해요'가, 동시는 청명초 유준형 학생의 '선생님 볼펜'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사진과 포스터 분야는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는 대상 문화상품권 45만원,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 문화상품권 25만원, 장려상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비교적 다양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공모전 작품도 한층 풍성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너도나도 공모전을 통해 교육가족들이 소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형 기자 jwh@

"교육가족 건강한 일상 위해 힘 기울일 것"

김승환 교육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서한문 전달

김승환 교육감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위드 코로나는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 더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드 코로나'시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면역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밀집도와 밀폐도가 높은 공간'에서 특히 더 감염률이 높은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점을 거듭 지도해 아이들의 의식과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 공간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환기해야 하고, 아이들의 면역계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생물학적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면역력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아이들과 교원·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형 기자 jwh@

탄소발자국 줄이는 학교급식 연수

전북교육청, 영양교사 대상 채식운영 사례 공유 및 토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현장에서 한 끼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식생활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급식 연수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하반기 채식식단 식재료지원사업' 희망학교 35개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채식급식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몸·맘·치유의 채식 알아보기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내용은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채식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에도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채식식단 식재료 지원 사업이 제대로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영양(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과 학교급식의 연계를 위한 교육주체별 인식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형 기자 jwh@

전북교육청, 한국 · 베트남 평화교류사업 추진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한국·베트남 평화교류사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1~12일,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한·베 평화교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화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진안 마령중학교와 고창 대성중학교로, 베트남 국적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 강연과 전쟁기념관 탐방이 있다.

특히 현장 관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전 교육을 통해 베트남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호치민 전쟁박물관 내부를 온라인을 통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우형 기자 jwh@

경남교육청, 온라인으로 온세상을 누리다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18개교 7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미래역량 키워

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계속되지만, 경남의 학생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제교류를 이어가며 미래역량을 키우고 있다.

함양 서하초등학교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인도의 한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했다. 서하초 3~4학년 학생 10명과 인도 아난타 비디야니케탄 학교의 3~4학년 학생 10명은 'Country'를 주제로, 각국의 전통문화를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인도 친구와 함께하는 온라인수업에 큰 흥미와 호기심을 가졌다. 3학년 박민서 학생은 "영어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신기했고, 코로나19가 나아지면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천중학교 영어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SMP 학교 학생들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온라인 만남을 가졌다.

양국 학생들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처럼 학교 간 온라인 국제교류가 가능해진 것은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의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On-누리 배움 프로그램' 덕분이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On-누리 배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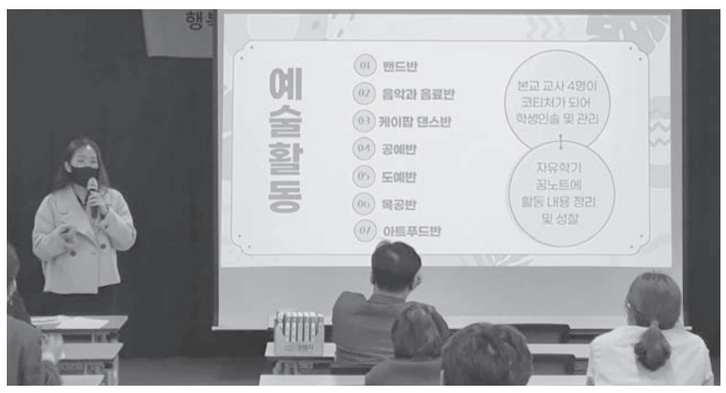
올해 경남의 18개교 초·중·고등학생 233명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학생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과 12월 6일에는 창원 현동초등학교와 사천중학교가 각각 일본 오카야마현 오쿠츠초등학교, 오키타중학교와 온라인으로 만난다.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는 온라인 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교육교류 길라잡이Ⅱ '온라인으로 On-세상을 누리다'를 제작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온라인 교류를 위한 준비-진행-마무리의 각 단계에서 참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공동 프로젝트 목록과 참고자료를 담아 처음 국제교육교류를 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서식 및 프로젝트는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 누리집 (http://www.gne.go.kr/ieec/index.gn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은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국제교육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고 말했다.



경남행복마을학교, 학교교육과정 협력 집담회

고교학점제 및 자유학년제 연계 수업지원 사례 발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일 오후 경남행복마을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 수업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는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참여학교 관리자 및 부장교사, 행복마을학교형 미래교육과정 전담팀, 마을교사 등이 참석해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경남행복마을학교 협력 고교학점제를 운영한 구암고, 자유학년제-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분야에서는 구암중, 자유학기제-동아리, 주제선택(환경, 지역) 분야에서는 양덕중, 진로체험활동 분야는 중앙중에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경남행복마을학교는 올해 실험적으로 학교연계형체험프로그램을 일회성 체험활동이 아닌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체험활동으로 전환했다.

일회성 체험활동을 넘어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진로체험활동 등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해 학교 밖 교육공간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교육청 소속 기관이 1년 동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경남교육청은 다른 학교 밖 체험 기관과 차별화하려는 방안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경화 경남행복마을학교 센터장은 "경남행복마을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협력을 위한 집담회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학년제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시민단체와 간담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참석, 상설협의체 설치 ·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제안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오후 교육감실에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정책센터, 김해여성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 여성의 전화,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가 참석해 교사 불법촬영 사안 발생에 따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시민단체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추진 △시민단체와 지속적 의견 교환을 위한 상설협의체 설치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협업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례제정 검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및 연수과정 개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제안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향후에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불시 불법카메라 점검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또다시 발생한 교사의 불법촬영은 교육의 기본적인 신뢰와 근본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예방과 빈틈 없는 사안처리,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법인형 제로페이' 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법인형 제로페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NH농협은행과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 약정식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법인형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보 무늬(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남교육청이 도입하는 법인형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제로페이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교육청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경남교육청은 제로페이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로페이 허브와 앱 사용, K-에듀파인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교육부와 NH농협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15일 통합테스트를 거쳐 11월 22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도입과 확산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할 예정이며, 교육청 주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한다.

경남교육청, 학부모교육 '아빠의 이름으로' 개강

17일, 24일, 30일 도교육청 공감홀서 수어통역 온라인 동시 방송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월 17일, 24일, 30일에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학부모교육 '아빠의 이름으로'를 개강한다.

이번 교육은 아버지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자녀와의 소통과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며 전 강좌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교육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아버지 학부모 70명이며, 교육장에 오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온라인(밴드)으로 동시 방송할 계획이다.

17일 첫 시간은 감정코칭에 기반한 자녀와의 대화법 '아빠의 감정코칭'을 고려대학교 조벽 교수가 강연한다.

24일 둘째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문요한마음연구소 소장인 문요한 강사가 '아빠의 행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아빠 자신도 행복하면서 가족도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30일 셋째 시간에는 마산YMCA 좋은아빠모임 최영준 대표가 하루 10분 놀이를 통해 아이와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신체활동에 대해 강의한다.

아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강의는,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로 고민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남지역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www.gne.go.kr/parents)에서 신청하면 된다.

WWW.에티켓통.COM
에티켓통 | ETIQUETTETONG
에 티 켓 통
화장실문화 개선 및 여성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S2B 학교장터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INE HYGIENE BINS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XV-ET101은 ?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폐생리대를 은나노항균봉투에 담아 은나노수거함에 처리하여 분리, 수거 할 수 있는 항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 피스로 고정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옮겨 달 수 있습니다.
– 매일 수거 봉투를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를 사용해 항균 및 탈취가 가능한 위생제품.
안전행정부·교육부 : 학교 및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개선 공문 발송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1329 (2017.04.14)
–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관리 개선 협조 요청
• 잘못된 관습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을 것.
– 단,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비치.
• 휴지통에 용변사용 휴지를 버림으로써 악취 및 실내 공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화장실 휴지는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무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일부개정 2017.05.08 / 시행일 2018.01.01]
제7조 3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항균·탈취·절수
특허청 [특허 제 10-11208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나노가 함유된 항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에티켓통 특성
▣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케이스와 봉투로 제작되어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하부 보관통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버리기 쉽고, 물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나사로 고정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리모델링시 철거 및 이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오염성 실험과 냉열반복시험, 저온낙하시험 등에 합격된 발명 특허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흉내 낸 단순 쓰레기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S2B 학교장터 | 구매방법
www.s2b.kr 접속 ▶ 물품목록창에 에티켓통이나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입력 ▶ 제품 및 수량 선택
모 델 명 | 금 액 | S2B 학교장터 물품식별번호
XV – ET101(항균위생봉투 1롤 포함) | 66,000원 | 201707016278840
항균위생봉투 (10롤 X 400매) 1BOX | 44,000원 | 201707016278964
항균위생봉투 (30롤 X 400매) 1BOX | 121,000원 | 201707016278948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 1롤(400매)
(설치 및 VAT 포함)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야지앤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

울산교육청, 지역 인재 타지역 유출 막자

고졸취업활성화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4개 일자리 정책 관련기관 약 30여명 참여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8일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울산 지자체와 유관기관 일자리 정책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하는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졸취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취업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울산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시교육청 미래교육과장, 교육협력담당관, 정책보좌관, 울산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5개 구·군청 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서장 등 총 14개 일자리 정책 관련기관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위촉식, 직업계고 현황과 울산지역 고졸취업 실태 발표, 기관별 취업정책과 일자리 정보 공유,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업 업무 발굴 순으로 진행됐다. 연 2회 부서장급 협의회, 분기별 실무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해서 정책들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부조화 최소화에 뜻을 모았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올해 9월, 울산광역시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은 100분의 20이상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졸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 및 안전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로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위축될까 우려되지만, 행정기관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들이 협의체로 맺어져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한 동반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과 협업 업무들이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화영 기자 ohy@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 인성키움 챌린지

울산강남교육지원청, 가족과 사제간 소통의 시간 마련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은 지난달 25일부터 초·중학교 학생이 포함된 가족과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 인성키움 챌린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 다양한 인성체험을 통해 가족과 사제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어디서든 함께하는 '가족사랑팀', 무엇이든 소통하는 '사제동행팀'으로 나누어 울산관광재단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인성 체험을 한 후 인증 사진과 소감글을 공유방에 탑재하는 팀에게는 울산시티투어 무료탑승권이 상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가족사랑 86팀 340여명, 사제동행 21팀 200여명이 참가했다.

정재균 교육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 인성키움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가족과 사제 간 정(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강남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화영 기자 ohy@

신선여고, '색깔있는 다양한 마을학교' 통해 꿈 키워

무지개 대현 마을학교 교사 참여 나만의 비누 만들기 등 재능기부 수업 운영

울산 신선여자고등학교(학교장 김수창) 배나무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6일 울산교육청 '색깔있는 다양한 마을학교' 사업 중 하나인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의 무지개 대현 마을학교 교사로 참여하여, 지역의 유·초등학생들에게 '나만의 비누 만들기' 등 공예수업과 다양한 재능기부 수업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마을학교의 교사가 함께 고등학생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신선여고 배나무 동아리 학생들이 마을학교의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에 나선 한 학생은 "평소 선생님이 되길 희망해 왔는데 마을학교 교사로 참여하며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재능기부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조성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형성되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청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화영 기자 ohy@

울산교육청, 업무 수행 지원

초등 교감 업무도움자료 제작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초등 교감 업무 도움자료'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초등학교 교감은 교무 관리, 학생 교육, 교장 직무 대행, 각종 민원 응대 등 업무가 다양하다. 특히 초임 교감은 다양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교감들이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교사들의 수업과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었다.

집필진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감(성안초 차용헌 교감 외 4명)이 참여해 전체적인 기획부터 세부적인 검토를 거쳤다. 310쪽 분량의 도움 자료는 교감의 역할, 교원의 복무, 교원 평정, 계약제 교원, 임용 발령과 호봉, 기타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례를 제시하고 도움말도 담았다. 업무처리에 중요한 사항도 한곳에 모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회복 지원 유·초등 교(원)감 공동 연수에서 단설유치원과 모든 초등학교 교(원)감에게 도움 자료를 전달했다. 도움 자료 집필진이 직접 자료 활용법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문덕환 기자 mdh@

울산교육청, 서로나눔학교 6곳 추가 지정

학교혁신 문화 확산 선도적 역할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혁신 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형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를 추가로 6곳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학교 9곳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6곳이 서로나눔학교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모두 22곳이 서로나눔학교로 운영된다.

신규지정 학교는 염포초, 반곡초, 상북초, 삼남중, 일산중, 웅촌중으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로 모두 6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제1회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상북초, 삼남중, 웅촌중의 서로나눔학교 출발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급별 및 지역 연계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상북초는 서로나눔학교로 운영 중인 상북중과 함께 초·중학교 연계는 물론 마을 자원 공유와 마을 연계 혁신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또한 삼남중, 웅촌중 역시 서로나눔학교인 삼동초와 초·중 연계를 이루어 혁신지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반곡초는 서로나눔학교 운영으로 내·외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염포초의 출발로 북구 지역 서로나눔학교 확장과 일산중의 서로나눔학교 시작으로 상진초, 양지초는 중학교 연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울주군 소재, 작은 학교 중심에서 19학급 규모인 일산중학교의 혁신학교 출발은 중학교의 학교혁신문화 확산과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시교육청은 서로나눔학교 실천동력 확산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매년 기본예산 2,000만원과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업무실무사를 1명 추가 배치하며, 유예, 전입요청, 비정기전보 등의 인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로나눔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와 급별, 지역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확대해 나가 계획이며, 서로나눔학교의 질적 성장과 실천력을 지속시키고, 학교혁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화영 기자 ohy@

울산동부도서관, 2021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

울산동부도서관(관장 박미영)은 지난 7일 한국도서관협회와 지역 공공도서관이 함께 연계하여 주관하는 2021년'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단위 독서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독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이다.

책 읽는 가족으로는 고영대, 박치홍 가족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영대, 박치홍 가족은 2020년도 기준 4인 가족이 연간 780권 이상 도서를 대출했으며, 가족 전체가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했다.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가족으로 도서관의 추천과 한국도서관협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오화영 기자 ohy@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5조 1,162억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미래교육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중점 편성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2년도 본예산안 5조 1,162억 원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지난해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보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6,474억 원, 국고보조금 559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본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2022년도 주요 사업은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232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4억 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68억 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Wee프로젝트) 302억 원 △학업중단 예방지원 9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233억 원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208억 원 △특성화고 지원 198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130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4,710억 원 등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6,585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4차 산업사회 등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교육 지원 64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42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현대화 78억 원 △학교정보화 장비 보급 49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7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77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3억 원 △민주시민교육 4억 원 △학부모연수 15억 원 등 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교육을 위해 3,123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을 강화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 250억 원 △누리과정 지원 및 운영 1,880억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11억 원 △학교(성)폭력 예방 173억 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47억 원 △초등 돌봄교실 151억 원 △급식소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4,747억 원 △학생수련활동 148억 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지원 78억 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49억 원 △교과서 지원 262억 원 △다문화교육 84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5억 원 △교육급여 지원 9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842억 원 등 배려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조 31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으로 총 3조 1,142억 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 인건비가 2조 8,11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관의 운영비 및 환경개선으로 1,063억 원, 예비비 199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2년도신규사업으로 학교 양치시설 설치 23억 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18억 원, 메타버스 선도학교 운영 2억 원, 학교 내 작은 미술관 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도입,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한구 기자 chg@

동절기 통학버스 안전 촘촘히 챙긴다

경북교육청,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에 걸쳐 '동절기 대비 통학버스 안전 운행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동절기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과 버스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동절기 대비 통학버스 안전 운행 점검 기간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자체 통학환경 실정에 맞도록 ▲동계차량 안전점검 ▲상습결빙구간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점검 ▲학생,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한 운행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적법한 운행을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미흡 사항은 적극 시정해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한구 기자 chg@

경북교육청, 이러닝 세계화 정보 사업 해외 진출

과테말라 교사 40명과 경북 원격 교육사례와 교육콘텐츠 공유 웨비나 열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3일 이러닝 세계화 사업 정보화 교류 협력중인 과테말라공화국 선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화 연수성과 공유를 위한 실시간 웨비나를 열었다.

과테말라 선도교사 40명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연수 콘텐츠 이해 증진 및 수업 현장의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의 연수를 진행했다. 국가간 상호 원격교육 환경에서 효율적인 연수 방법을 공유하고, 과테말라 학교 원격 교육 사례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콘텐츠는 경북 초등 이러닝세계화교사단(LEAD)교사 10명이 제작했다.

교육콘텐츠는 총 10차시로서 경북교육청 원격수업 우수사례, 원격수업을 위한 Zoom활용, Paddlets 활용, Kahoot 활용, 구글 클래스룸 수업 만들기를 통해 학생을 초대하고 기본과제를 제시하며 과제 채점을 하는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과테말라공화국에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과테말라 교육부와 2023년 12월말까지 정보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 최한구 기자 chg@

경북교육청, 중학생 동아리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중학생 독서 동아리 9팀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었다.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인문도서 읽기와 토론을 통해 생각의 힘을 기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송용진 작가의 '궁궐 2'를 주제 도서로 선정하고, 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해 독서토론, 책놀이, 책공연, 독서퀴즈, 작가와의 만남, 원화 감상을 함께 했다.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은 한 권의 주제 도서를 꼼꼼이 읽고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내관으로 알려진 송용진 작가는 '궁궐!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란 주제 강의에서 생기 넘치는 생각과 설명으로 역사를 재미나고 유쾌하게 풀어 주어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한구 기자 chg@

상주교육지원청,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실

관내 마을학교 중심 초등학교 대상, 체험 위주 운영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윤)은 관내 마을학교 중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실을 1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실은, 사전 공모된 마을학교 운영 중심 초등학교로 상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펼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일, 중모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된 이번 행사는 경북내 코로나 집단 발생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개인별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육이 꾸러미 체험, 손바느질 체험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김진희 기자 kjh@

'청소년 사이버 도박 OUT, 자기존중감 IN'

김천교육지원청, '2021 교원대상 학생도박 예방 교육' 실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은 11월 11일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도박 예방 교육을 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실시했다.

대구예술대 YN심리상담연구소 김경식 교수가 진행한 학생도박 예방 교육 연수는 청소년기 도박문제의 실태,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동기강화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방안, 도박에 대한 대처 기술,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행복기술 배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서로 다가가는 대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기 등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함께 상담 기법도 함께 공유해 교사들로 해금 학생들에게 도박으로부터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지원과장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예방법을 익혀 실생활에 건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희 기자 kjh@

경북교육청–경북자율방범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일 정책협의실에서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생활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해 진행되어야 함에 뜻을 모으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시·군별 학생 생활교육 취약지역 정보 공유 및 순찰 강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학생 생활교육 관련 정기적인 업무 협의회 개최 △기타 상호 협력과 학생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공동협력 한다는 것이다. 최한구 기자 chg@

지역민 인문학적 사고 키우는 '장성공공도서관'

토의·토론,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다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 호응

장성공공도서관 탐방

장성공공도서관(관장 박영수)은 학생, 지역주민 대상으로 진로인문학 특강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연, 토의·토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각 분야별 전문가 강의를 통해 지역민의 인문학적 사고 확장 및 독서생활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 연계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제공 및 독서·토론·글쓰기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강연 성료

장성공공도서관은 '2021년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온라인 강연을 지난 10월 21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은 2021년 장성공공도서관 한도서관 한책읽기 프로그램 성인부문 도서로 선정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주제도서로 하고 저자인 우종영 작가를 초청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나무를 통하여 배우는 삶의 가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 및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작가와의 만남 강연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강연을 통해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으며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강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9월의 북규레이션

■ 장성공공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

장성공공도서관은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동안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작가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만남으로써 학생들이 책과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10월 22일 구본권 작가와의 만남 강연은 장성황룡중학교, 장성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 장성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청소년 부문 도서로 선정된'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를 주제도서로 하고 '미디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11월 2일 홍민정 작가와의 만남 강연은 북이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홍민정 작가의 저서 '고양이 해결사 깜냥'을 주제도서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연계 독후활동으로 책표지 종이봉투 만들기를 함께 하였다.

오는 11월 17일에는 '노랑이들'의 저자 조혜란 작가가 북일초병설유치원과 한마음자연생태유치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11월 25일에는 '미술시간 마술시간'의 저자 김리라 작가가 분향초병설유치원과 중앙초병설유치원에서 1인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읽은 책의 작가 강연을 직접 듣게 되어 책 속의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을 통하여 마치 책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관장은 "작가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작은 과학관, 천연염색 작품 등 다양한 전시 행사 열려

장성공공도서관은 갤러리 뜨락과 1층 로비에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작은 과학관'을 운영했다.

'작은 과학관'은 과학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접근이 편리한 도서관 등에 희귀한 과학기술 자료를 전시하여 생활 속 과학문화체험 기회를 확산하기 위한 국립중앙과학관의 순회 전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1층 로비와 2층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여 해외 곤충과 어류 등의 희귀 생물 표본과 화석, 카메라의 발전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지주식 폴딩 카메라 등 이공학 관련 자료들을 전시했다.

박영수 관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장성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큰 성과 거둬

장성공공도서관이 운영한 2021년 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에서 수강생 53명이 수강 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공공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조경기능사(국가자격증)와 컴퓨터 ITQ(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시험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이 각각 4명, 5명이 합격했다. 이밖에도 독서토론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미술상담사 등 7개 분야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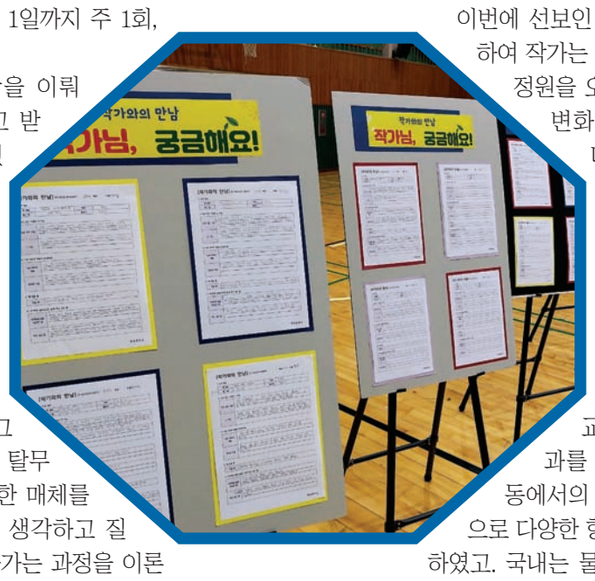
한편 도서관은 9월부터 독서토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민은 독서토론지도사이자 도서관 독서회 회원 5명이며,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과 관련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영수 도서관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속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문교양, 직업능력교육, 학력보완교육, 부모교육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성공공도서관,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장성공공도서관(관장 박영수)은 10월 11일 도서관 강당에서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하브루타 자녀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민형덕 외래교수를 초청,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 공부법 하브루타를 가정에서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11월 1일까지 주 1회, 총 4회 운영했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토론하며 생각을 키우는 유대인 교육법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책, 탈무드,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론 수업과 실습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던 하브루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쉽게 실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관장은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법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장성공공도서관, 8월 뜨락 갤러리 전시

장성공공도서관은 갤러리 뜨락에서 8월 한 달 동안 이은숙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수이의 노란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한 이은숙 작가의 순천만 국가정원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유화 20여 점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을 그리기 위하여 작가는 1년간 순천만 국가정원을 오가며 사계절 꽃의 변화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을 작가만의 노란색을 사용하여 화폭에 담아내었다.

이은숙 작가는 조선대학교 서양학과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전공하였다. 인사동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참여하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아트페어에도 20여 회 초대되었다. 현재는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혀 서양화 강의 외에도 순천에 위치한 두 곳의 갤러리 '해 지면 열리는 미술관'과 '갤러리 연향'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은 전시장을 찾기 힘든 지역주민을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도 병행했다.

8월의 뜨락

2021년 사업추진 우수 사례

■ 인문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진로인문학특강	유튜버, 웹툰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학교로 파견하여 진로·직업 강연	중학생
인문학 목요스터디	예술, 역사, 철학 분야 전문가의 심도있는 강의와 토의·토론 활동	지역주민
인문학 강연회	철학, 문학 분야의 사회적 저명 인사 초청 인문학 대중 강연	학생, 지역주민
도서관 지혜학교	철학 고전 읽기와 자유로운 토론 활동, 고전에 대한 이해력 향상	지역주민(신중년)